

Amundi
Investment Solutions

Trust must be earned

**Investment
Institute**

연준 신임 의장 체제 속 원자재 변동성

CROSS ASSET INVESTMENT STRATEGY

2026년 2월 전문 투자자 전용 마케팅 자료

Marketing material for the exclusive attention of professional clients, investment services providers and any other professional of the financial industry

목차

이달의 주제

금,은,구리,원유: 시장을 좌우하는 힘

[4](#)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8](#)

글로벌 투자 전망

CIO 전망: '심하게 냉각되지 않은' 경기 속 시장

[12](#)

채권: 인플레이션이 ECB 정책 난제의 열쇠

[15](#)

주식: 열광보다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선호

[16](#)

멀티에셋: 방어력 강화, 리스크 미세조정

[17](#)

자산군별 아문디 전망

[18](#)





MONICA DEFEND
HEAD OF AMUNDI INVESTMENT INSTITUTE

“금, 은, 구리, 석유는 구조적 수요 변화, 지정학적 위험, 단기 투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움직이고 있음. 원자재 중에서는 구조적 분산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는 금과 강력한 장기적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 구리의 조합을 선호함.”

“변동성 시장에서는 분산투자가 핵심임. 주식에서는 집중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계하며,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 독일 재정 부양책, 인공지능 및 기술 분야 기회 등 구조적 스토리를 선호함. 특히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에 집중함.”



VINCENT MORTIER
GROUP CHIEF INVESTMENT OFFICER

이달의 주제

금, 은, 구리, 원유: 시장을 좌우하는 힘

저자

LORENZO PORTELLI
 HEAD OF CROSS ASSET STRATEGY, AMUNDI INVESTMENT INSTITUTE

1월 말 원자재 시장 전반에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함. 단기적 열광 이후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원자재들(은, 백금, 주석, 미국 천연가스(NG), 유로)에서 월말 투기 포지션 청산이 촉발된 것으로 보임.

은은 1월 30일(금) 약 26% 급락했으며, 미국 천연가스도 2월 2일(월) 유사한 하락폭을 기록함. 이로 인해 귀금속과 가스의 변동성은 역사적 수준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함.

금, 은, 구리, 원유는 구조적 수요 변화, 지정학적 위험, 단기 투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반응하고 있음. 중앙은행 매입과 안전자산 유입이 금을 지지하는 반면, 은의 상승세는 단기적 공급 부족과 산업 수요로 부분 설명됨. 구리는 전기화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인한 장기적 구조적 격차에 직면했으며, 원유는 불균형적인 지정학적 테일 리스크에 계속 노출됨.

금과 산업용 금속 노출을 결합한 밸런스드 바벨 전략에 대체자산에 대한 적정 비중 배분을 더하면 포트폴리오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음.

"구조적 변화와 단기 투기가 원자재를 주도하는 가운데, 바벨 전략은 금을 안전자산으로 삼아 보호 기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용 금속을 통해 전기화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에 의한 혜택을 추구함."

2026년 원자재 시장의 주요 시사점



금의 상승세는 단기적 펀더멘털보다는 장기적 구조적 요인(중앙은행 수요, 지정학적 헤징)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5~10%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합리적이지만 상승위험은 상당함.



은은 현재 약 10%의 공급 부족 상태이며 산업 수요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헤징 목적에서는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크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구리는 2040년까지 수요가 50% 증가해 약 4,2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며, 공급은 긴 프로젝트 리드타임, 광석 등급 하락, 지정학적 집중화로 제약받을 것임. *출처: S&P 글로벌 "Copper supply gap to widen 24% by 2040 as electrification accelerates: study"



원유 가격 민감도는 공급량 100만 배럴/일(mb/d) 변동 시 배럴당 약 +5~7달러 수준임. 기준 공정가치는 배럴당 60~70달러 선이지만, 이란 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격은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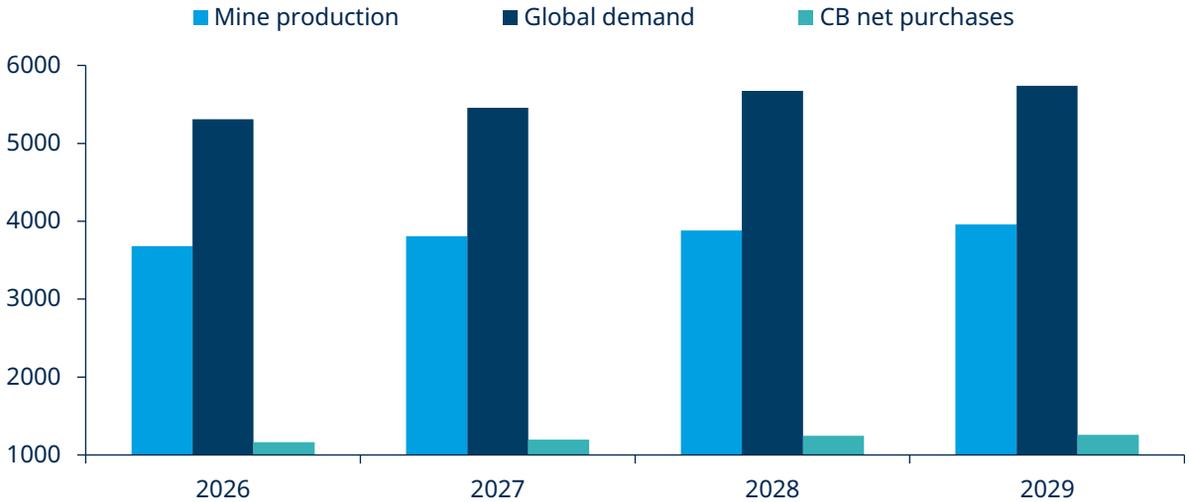
전술적 자산 배분: 다각화를 위해 금을 선호하고, 녹색/AI 슈퍼사이클을 위한 구리(또는 주석)에 선별적 접근하며, 운용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대체자산에 최소 약 10% 배분.

현재 원자재 시장은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와 단기 투기적 포지션이 혼재된 양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향후 몇 년에 대한 기대감이 — 단순한 가격 목표가 아니라 — 시장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일 지점 예측보다는 시나리오와 위험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함.

금: 구조적 지지, 지정학적 헤지 수단

금의 최근 상승세는 즉각적인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중장기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주요 구매자로 남아 있음.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의 금 구매는 2025년 하반기 급등한 가격으로 인해 둔화될 전망이지만(2025년 중앙은행 금 구매 총량은 863톤), 누적 구매량이 수천 톤에 달하는 대규모 구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수요 전망치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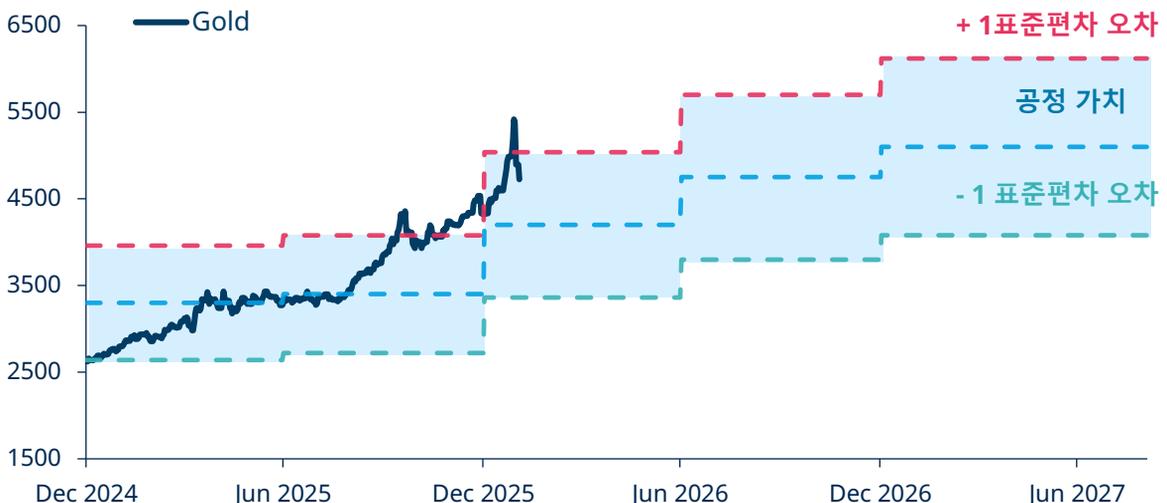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Data is as of February 2026.

이러한 자금 흐름은 고조된 지정학적 위험과 금속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역할과 결합되어 현재 약 5~10% 범위의 위험 프리미엄을 창출함. 시장 참여자들이 구조적 공급 부족을 점차 가격에 반영할 경우 이 프리미엄은 크게 확대될 수 있음.

기술적 측면에서 가격 움직임은 강세를 보였으며 신뢰할 만한 매도 신호는 거의 없음. 전략적으로 금은 귀금속 중 가장 명확한 헤지 수단임. 지정학적 충격과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자산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금은 은보다 더 명확하고 방어 가능한 투자 논리를 제공함.

금 가격: 공정가치 대비 (USD/oz)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Data is as of February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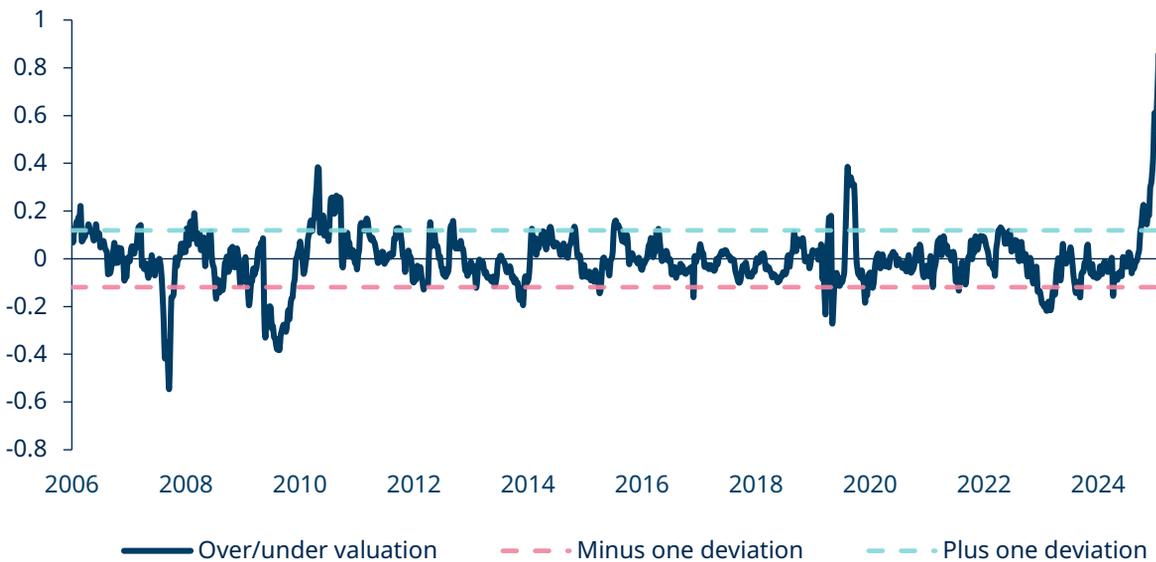
은: 10% 공급 부족이지만 더 취약한 상황

은 시장의 역학은 금과 다름. 현재 추정치는 약 10%의 공급 부족을 시사하며, 이는 투자자 관심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됨. 또한 이 금속은 귀금속 수요와 녹색 전환 및 AI 하드웨어에서의 확대되는 산업적 역할 모두에서 혜택을 받고 있음. 중국의 증가하는 은 수요와 태양광(태양광 패널) 및 전자제품에서의 사용은 수요 배경을 강화함.

"은은 약 10%의 공급 부족과 증가하는 산업 수요에 의해 지지받고 있지만, 최근 상승폭은 거시적 펀더멘털을 초과하여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큼."

그러나 은 가격 움직임은 때때로 명확한 거시적 펀더멘털이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섬. 은은 투기적 자금 흐름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금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음. 투자 관점에서, 귀금속의 안전자산 특성을 원하지만 금의 상대적 안정성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은에 대한 소극적 포지션이 합리적임.

은의 최근 움직임은 펀더멘털로는 거의 설명되지 않음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Fair value is calculated considering: growth (LEI sector), US rates, US CPI, credit spreads, FX (USD, EUR, JPY, CNY), central bank balance sheets (Fed, ECB, BoJ). Dislocation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price levels and fair values. Data is as of February 2026.

구리: 전기화와 AI의 중추

구리의 중장기 전망은 구조적으로 강세임.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내연기관 차량 대비 약 3배의 구리 사용), 전력망 현대화 등에 힘입어 2040년까지 소비량이 약 50% 증가할 전망이다. 이 추세는 글로벌 수요를 약 4,200만 톤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

"구리는 전기화의 핵심으로, 2040년까지 수요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급은 느리게 반응하여 구조적 부족을 지지하며 선호되는 산업 노출 자산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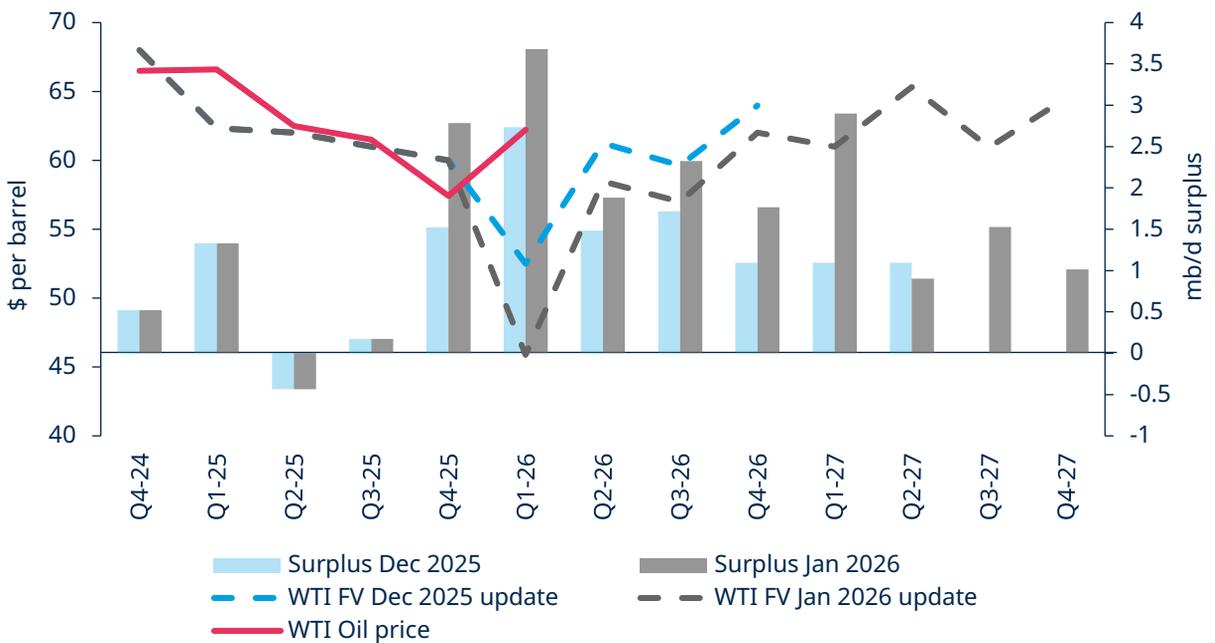
그러나 공급은 느리게 반응함. 신규 광산 개발은 일반적으로 가동까지 10~15년이 소요되며, 기존 광산은 광석 등급 하락에 직면해 있음. 또한 생산이 칠레, 페루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정치적·사회적 리스크가 존재함. 재활용이 도움이 되지만, 대규모 스크랩 회수를 유도할 만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그 자체로 격차를 메울 수는 없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장기적인 구조적 부족이 예상되며, 이는 구리(일부 경우 주석)를 전기화와 AI 인프라 투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호 산업 노출 자산으로 만듦.

원유: 비대칭적 리스크, 합리적 기본 시나리오

유가는 단기적으로 공급 충격과 지정학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와 구별됨. 유용한 경험칙은 공급이 하루 100만 배럴(1 mb/d) 변할 때마다 균형 가격이 배럴당 약 5~7달러 정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민감도는 시나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함. 즉, 가동 중 단된 생산업체들의 빠르고 대규모 증산(소위 'flooding' 시나리오)은 단기간에 실행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가격 붕괴를 이끌 가능성은 낮음. 반면 이란의 대규모 생산 중단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 봉쇄와 같은 공급 차질(소위 'upside' 시나리오)은 급격한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이란은 공급 차질이 추가적 증가가 아닌 파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승 테일 리스크를 대표함. 이란의 완전한 공급 중단(≈3.3 mb/d)은 배럴당 약 17~23달러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균형 가격을 80~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음. 호르무즈 해협의 중대한 차단은 이 병목 지점을 통과하는 약 20~25mb/d의 유량을 고려할 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폐쇄는 운영 및 정치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움. 이러한 테일 리스크를 고려할 때, 현재 중간 주기 공정가치 범위는 배럴당 60~70달러 선이 가장 타당해 보임. 단,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WTI 원유: 변동하는 공급 과잉(mb/d) 속 현물 가격 및 공정 가치(USD/bbl)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Data is as of February 2026. FV = Fair Value by Amundi Investment Institute. The chart illustrates how changes in the expected surplus between the December 2025 projections and the January 2026 projections impacted the revision of the WTI fair value estimates.

투자 시사점: 바벨 전략과 대안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 바벨 접근법이 합리적임: 헤징 특성을 가진 금과 전기화, 인공지능, 인프라 지출에서 비롯된 구조적 상승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한 선별된 산업용 금속(구리 또는 주석) 노출을 결합하는 것임. 은은 전술적 노출을 위한 위성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핵심 헤징 수단으로는 금을 선호해야 함.

포트폴리오 구성 시 복잡한 환경에서 대체 투자 비중 확대와 동적 자산 배분 도구 활용도 고려해야 함. 운용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대체투자(원자재 중심 펀드, 실물자산, 기타 분산투자 수단 등)에 최소 10%를 배분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충격과 지정학적 테일 이벤트에 대비한 유용한 볼록성을 제공할 수 있음.

진화하는 기대와 비대칭적 위험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에서 단기 가격 목표는 제한된 유용성을 가짐. 대신 투자자들은 시나리오(경기 침체, 금융 스트레스, 공급 차질)를 모델링하고 해당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과 잠재적 영향을 모두 반영하도록 포지션 규모를 조정해야 함. 금속의 경우 핵심 공급 대응에 긴 리드 타임이 소요되고 에너지에는 지속적인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원자재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요소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적극적인 관리와 명확한 시간 범위 및 위험 허용도에 대한 시각이 필요함.

이 달의 주제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6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는 제롬 파월의 임기가 5월에 종료됨에 따라 후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함.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 연준 이사를 역임했으며, 과거 몇 차례에 걸쳐 대표적인 정책 매파로 활동한 인물임. 시장이 워시 지명과 그의 최근 발언의 함의를 소화하는 가운데, 당사는 Alessia Berardi(Head of Global Macroeconomics)에게 투자자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워시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주요 테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전망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연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음.

Alessia, 케빈 워시의 과거 발언과 현재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그의 정책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케빈 워시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결과, 그는 역사적으로 성장 목표보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우선시해왔으며, 양적완화를 자주 비판하고 연준이 때때로 통화 정책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해왔음. 그의 최근 발언은 현재 미국경제의 강세가 혁신 주도 사이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례 없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이 촉진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이는 제한된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더 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금리 정상화를 정당화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경제 펀더멘털이 정당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또 다른 핵심 관측 요소는 파월 의장이 FOMC에 잔류할지 여부임. 각 위원의 표결권이 동등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당사는 AI가 가져다주는 기회와 도전을 계속 평가하고 있지만, 미국경제의 강세는 여전히 고르지 못함.

시장으로 눈을 돌려, 워시 지명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워시 위원장 체제에서 시장은 연준이 지명 전 예상보다 덜 공격적인 비둘기파적 기조를 보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른 다른 인물들에 비해 워시는 가장 비둘기파적 성향이 약한 선택지로 보이며, 이는 금리 인하 횡수 감소 또는 속도 둔화, 대차대조표 확대 재가속화 의지 약화 등으로 결과 분포를 이동시켜 결국 장기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비록 그가 최근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한 바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융 여건이 긴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즉각적인 시장 움직임은 의장 임명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와 통화 정책 결정의 보다 정통적인 접근으로의 복귀를 반영함. 불확실성 감소는 1월 동안 금과 특히 은에서 축적된 투기적 포지션과 과밀 포지션에 영향을 미쳤음. 한편 워시 연준이 변동성에 대응해 급격한 금리 인하나 새로운 양적 완화로 시장을 지원할 의향이 적을 것이라는 인식은 달러를 지지함. 금리는 상승한 반면 주식은 하락함.

저자

**ALESSIA
BERARDI**

HEAD OF GLOBAL
MACROECONOMICS,
AMUNDI INVESTMENT
INSTITUTE

인터뷰 진행:

**CLAUDIA
BERTINO**

HEAD OF INVESTMENT
INSIGHTS,
PUBLISHING AND
CLIENT
DEVELOPMENT, AII

“워시는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통제를 최우선으로 해왔지만, 오늘날 생산성 주도 성장은 신중한 완화 기조를 지속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오직 펀더멘털이 정당화할 때에만 가능함.”

종합해 보면, 금리 곡선의 단기 부분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하락 위험도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그렇다면 연준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가?

워시 의장 체제 하의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유보된 상태임. 그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제 및 정치 체제의 변화와 함께 그의 견해도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그는 현재 미국의 성장 동력이 혁신과 공급 측면의 성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재한 상황이 금리 인하 논리를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당사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봄.

워시 의장이 다른 통화 정책 수단을 선호할지에 대한 추측이 있었지만, 당사의 전망은 근본적으로 실물 경제에 기반함.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는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니며 상호 교환 가능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거시경제적 배경 하에서, 당사는 연준이 신중하고 지표에 의존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당분간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긴축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예를 들어 사모시장에서 유동성 충격이 발생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정책 수단이 확실히 검토 대상이 될 것임.

앞으로 전망해 보면, 연방기금 금리는 2026년 말까지 FOMC의 목표 범위인 2.8~3.6%의 중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하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음. 그러나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성장 재가속화나 2차 인플레이션 효과 없이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임.

"연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지표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플레이션이 명확하고 지속적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여름 동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연준의 다음 움직임을 가능할 핵심 지표

주목할 점	— 그리고 그 중요성	주요 일정 및 신호
데이터 공백	6월 17일까지 제한된 2분기 데이터로 수요 둔화에 대한 확신은 낮음; 기저 효과로 1분기 GDP는 강해 보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GDP, 2분기 부분 데이터(4월/5월)
인플레이션 신호	CPI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연준은 핵심 PCE에 주목하고 있음;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PCE는 여전히 하락세지만 2.5% 근처 (5월/6월)
노동시장 및 임금	고용 증가세 둔화, 노동 참여율 하락, 임금 상승률 감소는 완화 정책 근거를 강화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상승률, 고용 규모 주목
금융 여건	시장 움직임, 크레딧 스프레드, 글로벌 리스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음;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리스크 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채권 움직임, 크레딧 스프레드
정치적 시각	선거 직전 금리 인하는 정치적 반발 위험; 연준은 일관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미국 중간선거
커뮤니케이션 및 시퀀스	'데이터에 의존하는' 메시지 예상; 7월 29일이 더 명확한 전술적 창구이며, 다음은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29일 FOMC, 9월 16일 FOMC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Conference Board. Monthly data as of January 2026.

미국 경제 전망 재평가

Annalisa Usardi, CFA, Senior Economist, Head of Advanced Economy Modelling, AII

차기 연준 의장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물려받을 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활동 지표들은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강력한 경제 모멘텀(상당한 생산성 향상과 연관됨)을 시사하며, 이는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종 단계에서 추가적인 공격적 정책을 경계하게 함. 이 예상보다 강한 모멘텀으로 인해 당사는 2026년 미국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함. 현재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대비 4분기 성장률은 약 2%로 전망됨. 이는 여전히 연준의 중앙 경향성 전망치 하단에 해당하지만, 위험 요인은 여전히 상향 조정 가능성에 치우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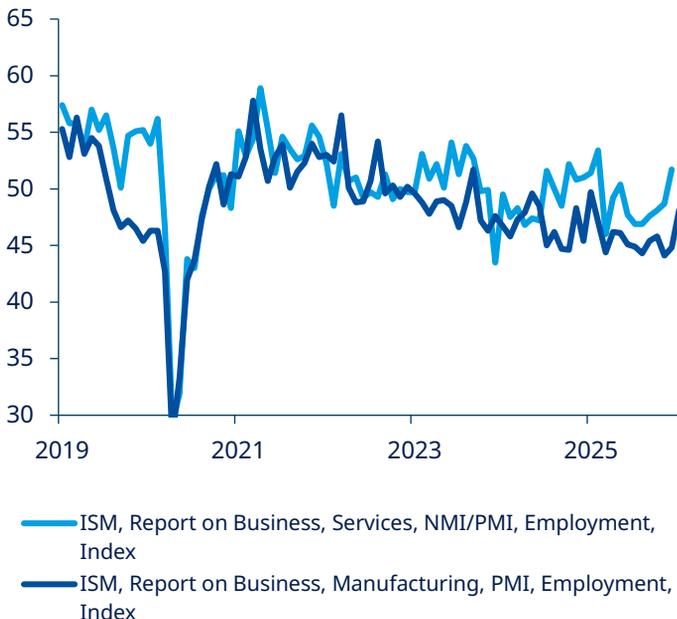
인플레이션은 2026년 2.4~3%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CPI는 향후 몇 달간 더 뚜렷한 완화 조짐을 보인 후, 연중 중반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임. 핵심 PCE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해 상반기 중 2.5% 근방에서 유지될 전망이며, 하반기에는 더 뚜렷한 완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임대료 상승에 주로 기인한 서비스 물가는 측정 항목이 실제 임대료 추세와 일치함에 따라 완화될 것이며, 이는 핵심 서비스 부문의 추가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임. 전반적으로 단위 노동비용 완화와 생산성 개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의 점진적 둔화가 맞물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봄.

미국 생산성 재가속화 (노동생산성 지수 수준, 2005-2019년 추세선 대비 편차)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Macrobond. Data as of end Q3 2025.

안정화와 개선의 잠정적 신호 (지수 수준)



이제 고용시장으로 눈을 돌려, 최근 동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예상해야 할까?

최근 노동시장 지표는 안정화 조짐을 보였던 기간 이후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ISM 및 PMI와 같은 설문조사에서 채용 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들은 최근 가장 강한 채용 의향을 보고했으며, 과거보다는 소폭이지만 보상 증액 계획도 세우고 있음.

다른 지표들은 약세를 더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JOLTS는 12월 구인 건수가 예상치 못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었고, ADP의 1월 임금 지급 증가율은 예상보다 약했으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함. 그러나 직원 해고는 여전히 제한적임. 이러한 지표들은 노동시장 상황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기를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Conference Board. Monthly data as of January 2026.

글로벌 투자 전망



GLOBAL INVESTMENT VIEWS

'심하게 냉각되지 않은' 경기 속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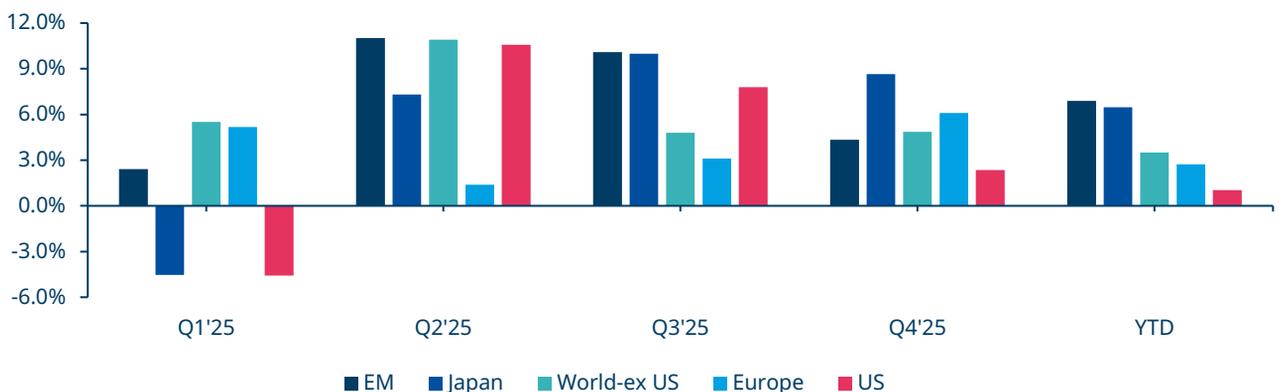
올해는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며 다사다난하게 시작됨. 연준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은 유가와 위험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그러나 나토 동맹국 주권에 대한 위협은 일시적 변동성을 유발했으며, 시장은 결국 이 공포에서 회복했고 미국은 다른 지역보다 뒤쳐졌음. 일본의 재정적 낭비와 인플레이션 우려는 채권 수익률을 상승시킴.

당사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만큼 과열되지도, 지나치게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 성장과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안일함이 위험자산의 지속적인 상승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봄.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완만한 GDP 성장과 디스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움직이면서 시장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함.

앞으로의 길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과 트럼프의 국내 정책, 그리고 그가 밝힌 전통적 동맹 관계 재편 의도로 가득 차 있음. 연준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앵커링 해제(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나 위험은 증가 중)로 이어질 수 있음. **이 모든 것은 미국자산에서 다각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당사의 견해와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함.** 현재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확인하며 유로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유로존 성장률은 당사 이전 전망치보다 소폭 상회하나, ECB 전망치(실질 GDP 1.2% vs 1.0%)에는 미치지 못함.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1.0% 성장을 예상함.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 이미 시행된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활성화, 주변국들의 NGEU(유럽회복기금) 자금 투입 등이 당사 전망을 뒷받침함. 다만 지역 내 소비 동향과 노동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주식시장은 모멘텀 유지: 일본과 신흥국 주도, 미국은 현재까지 부진



VINCENT MORTIER
GROUP CIO



MONICA DEFEND
HEAD OF AMUNDI
INVESTMENT INSTITUTE



PHILIPPE D'ORGEVAL
DEPUTY GROUP CIO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as on 23 January 2026. MSCI Indices for EM and World ex US, S&P500 for US, Stoxx 600 for Europe and Topic for Japan. All indices are priced in local currencies.

-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연간 수치가 3.0%에서 2.8%로 하향 조정됨.** 그러나 재정 부양책과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를 더 오래 상회할 것으로 봄. 소비자물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것임. 둘째, 관세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정도는 제한적이며 기업들이 증가된 비용을 흡수하고 있음. 당사는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음.
- **중국 GDP는 국내 경기 부진(주택시장 조정 및 소비 위축)과 외부 수요 감소로 인해 2025년 대비 올해 4.4%로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온건하고 선별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정책 부양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임. 최근 12월 말 발표된 내용도 이러한 전망과 일치함.
- **금 가격은 구조적 상승 동력을 확보함.** 지정학적 긴장(트럼프의 비정통적 정책 포함), 구조적 추세(적자/부채 증가), 중앙은행 수요가 금값 상승을 이끌 것임.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란과의 갈등 확대 가능성은 공급 증가가 아닌 공급 차질(호르무즈 해협 경유) 위험으로 인해 유가 상승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원유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이며, 1분기에는 가격 하락 압력이 예상됨. 하반기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60~70달러 선에서 안정될 수 있음.

유럽의 디스인플레이션 환경, 미국의 재정 지원 및 '정치적 소음', 중국의 낮은 성장률 안정화 속에서 당사는 다음과 같은 자산군 관점으로 리스크 온(risk-on) 입장을 유지함:

- **채권에서는** 전체적으로 듀레이션에 대해 중립적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고 유럽(주변국 포함)과 영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기업 크레딧채권은 특히 EU 투자등급 BBB 및 BB 등급 채권에서 양호한 캐리를 제공함. 위험 요인은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닌 고착적 인플레이션임. 신흥국 채권에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별적 접근을 통해 캐리를 추구함.
- **주식에서는**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 독일 재정 부양책, 인공지능 열풍 외 기업 발굴 등 구조적 스토리를 선호함. 신흥국 역시 강력한 경제 활동과 연준 정책으로 긍정적임.
- **멀티에셋에서는** 안정성 제공 특성으로 금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하향 조정함. 신흥시장에서는 남미주식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상향함.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위험 선호(risk-on)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함.

그린란드/NATO 관련 트럼프 행보, 미국 중간선거, 관세 및 유럽의 대응이 단기시장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리스크 감수 성향

Risk off

Risk on



강한 모멘텀은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어, 당사의 리스크 스탠스를 유지하게 함.

전월 대비 변화

- **멀티에셋:** 금에 대해 더 긍정적, 원유에 대해 신중; 신흥국 주식에 대해 더 건설적,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 대해 약간 덜 긍정적.
- **외환:** 달러를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단기적으로 유로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함.

Overall risk sentiment is a qualitative view towards risk assets (credit, equity, commodities) expressed by the various investment platforms and shared at the global investment committee. Our stance may be adjusted to reflect any change in the market and economic backdrop.

ECB= European Central Bank, DM= Developed Markets, EM = Emerging Markets, CBs = central banks, IG = investment grade, HY = high yield, HC = Hard Currency, LC = Local Currency. For other definitions see the last page of this document.

AMAURY D'ORSAY
HEAD OF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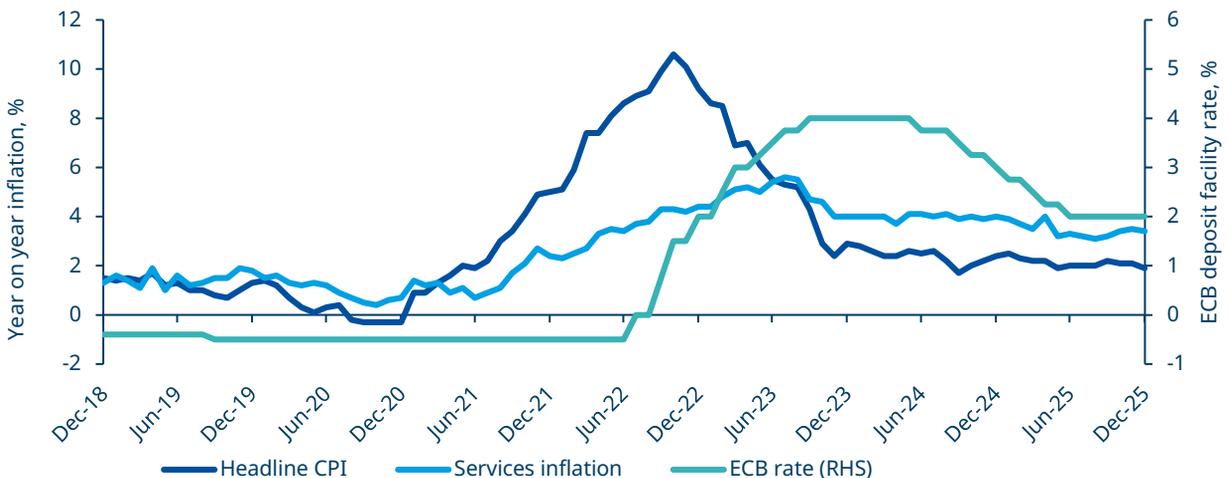
인플레이션이 ECB 정책 난제의 열쇠

ECB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가격 책정은 비대칭적이며, 이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음을 시사함. 그러나 유로존에서는 디플레이션 경로가 유지될 것이며, 물가 상승 압력이 ECB의 2% 목표치를 밀돌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인상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봄. 또한 ECB 내 비둘기파적 목소리가 부각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점도 주시함.

미국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지도부 교체, 그리고 (약화 조짐을 보이는) 노동시장이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임. 당사는 수익률 곡선에 대한 글로벌 초점을 유지하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기업 크레딧 및 신흥시장 채권을 통한 캐리를 모색할 것임.

듀레이션 및 커브	기업 크레딧	신흥국 채권 및 외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과 유로존의 듀레이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유지하며,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시각을 갖음. 중기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시장 컨센서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커브 가파름을 기대하지만, 10년-30년 구간에서는 전술적으로 이 전망을 낮추고 있음. 일본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며, 미국 듀레이션(2년 및 30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물가연동채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관점에서 영국 및 미국보다 EU를 선호함. 기업 크레딧에서는 베타보다 캐리를 선호함. 강력한 자본 완충력을 바탕으로 비금융주보다 금융주를 선호하며, 장기물 보다 단기물을 선호함. 또한 수익률과 퀄리티 간의 균형을 추구함. 현재 자본 구조 하위권(예: BBB 등급)의 크레딧 상품이 매력적인 캐리를 제공한다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은 신흥국에 유리하지만 지정학적 요인으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음. 당사는 여전히 긍정적이며 2026년이 신흥국 채권에 있어 캐리 수익이 발생하는 해가 될 것으로 봄. 현지 통화, 고수익 및 회사채에서는 하이일드를 선호함. 지역별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예: 아르헨티나)를 선호함. 외환시장에서는 전술적으로 유로를 하향 조정하고 달러를 중립으로 상향 조정함. 연준의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이미 시장에 반영됨.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함.

유럽: 서비스 포함 인플레이션과 내수 소비가 ECB 금리 인하의 핵심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Eurostat. Latest month-end values as of 22 January 2025.

주식

저자

열광보다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선호

미국과 유럽 주식은 혼재된 경제 및 지정학적 뉴스 흐름에도 불구하고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제 지역별 밸류에이션 분산과 실적 강세가 어느 시장이 우위를 점할지 결정할 것임. 현재 진행 중인 실적발표 시즌은 EPS 성장률과 더 중요한 자본 지출(capex)을 시험할 것임. 미국에서는 집중 위험, 정치적 불확실성, AI 분야의 자본 오배분(misallocation)이 우려됨. 이러한 위험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지 못함.

BARRY GLAVIN
HEAD OF EQUITY
PLATFORM

미국 및 AI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벗어나 일본, 신흥국 및 유럽과 같은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향한 다각화 전략에 대한 확신을 재확인함.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수익 잠재력 간의 적절한 균형이 제시될 때 변동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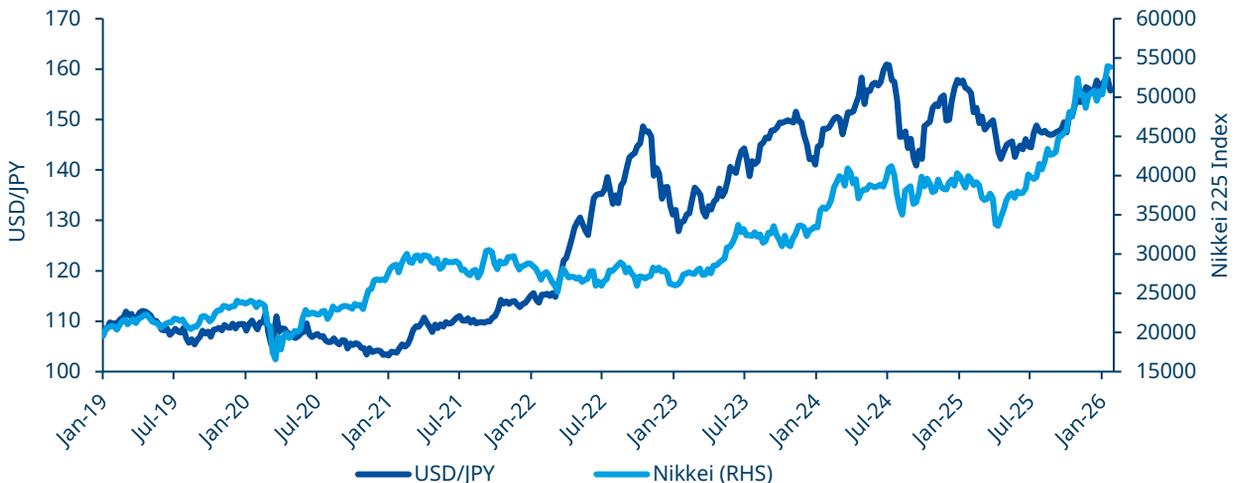
선진시장

- 유럽에서는 지난해 수익성 증가세가 가속화된 점이 안심됨.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유럽 시장이 양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 한 자릿수 후반의 수익성이 필요함. 업종별로는 금융, 산업,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업종을 선호함. 일본에서는 금리 정상화, 엔화 강세, 정치적 요인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 구조적 스토리는 여전히 매력적임.
- 유럽과 일본에서는 대형주 대비 평가가격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논거가 강력함. 자본수익률과 부채비율 측면에서의 퀄리티 개선도 진행 중임.
-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기 공학, 전력 수요, AI 적용 하위 분야에 주목함.

신흥시장

- 연준과 ECB의 통화 정책, 그리고 지역 전반에 걸친 건조한 경제 성장 기대(지역별 차이는 있으나)가 결합되어 신흥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남미, 신흥 유럽, UAE를 선호함. 남미의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며, 정치적 환경을 주시하고 있음. 브라질에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긍정적인 수익 성장이 예상됨.
- 중국에서는 정부의 반(反)과잉 투자 정책과 과잉 생산 능력 억제 조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함. 정부가 성장 모델을 내수 소비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대만과 사우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함.
-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를 선호함.

일본: 장기적 논리는 유효하나 엔화 강세가 단기 변동성 유발 가능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latest weekly data as on 23 January 2026. Upward move on the left vertical axis indicates yen weakening, downward shift shows yen strength.

멀티에셋

방어력 강화, 리스크 미세조정

미국과 유럽의 경제 환경은 합리적이지만, 다수 자산군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가운데 미국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포착됨. 더불어 최근 지정학적 뉴스 흐름은 전반적으로 온건한 위험 선호 태도를 유지하되 경계심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함. 견실한 이익 사이클, 강력한 모멘텀,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과 크레딧 시장에 대한 당사의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함. 특히 **신흥시장 내 가치 투자 영역을 탐색하며, 금을 통한 안전장치 확대와 미국·유럽 위험자산에 대한 헤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유럽, 영국,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는 한편, 남미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신흥시장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상향 조정함. 일반적으로 남미는 다른 신흥시장 대비 매력적인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제공함. 해당 지역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은 통화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올해 강한 실적 기대와 맞물려 브라질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미국(5년물)과 유럽(10년물) 채권 듀레이션에 대해 건설적인 시각을 유지함. 미국에서는 노동시장 약세와 관세 인상 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제한적으로 전이되고 있음. 성장세 또는 기업 실적의 잠재적 약세와 금융 여건 긴축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 국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지만, 파생상품을 통해 이 관점을 헤지함. 또한 독일 국채보다 이탈리아 국채를 선호하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재정 압박이 지속되는 일본 국채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함. EU 투자등급 회사채는 견조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원자재 부문에서 당사는 금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됨. 중기적 촉매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 파생상품보다 실물인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시장이 스트레스를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석유에 대해서는 OPEC의 제한적인 가격 지지 속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외환 시장에서는 노르웨이 크로네와 일본 엔이 유로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는 엔화 강세를 촉발할 수 있는 반면, 노르웨이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막을 것임.

저자

FRANCESCO SANDR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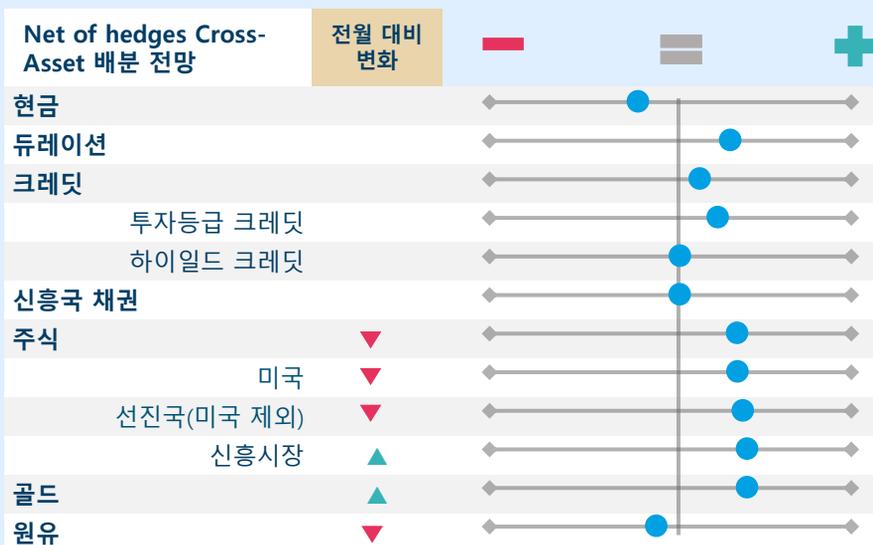
CIO ITALY & GLOBAL HEAD OF MULTI-ASSET

JOHN O'TOOLE

GLOBAL HEAD - CIO SOLUTIONS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안정성으로 인한 혜택으로 신흥국 주식에 대한 입장을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금에 대한 전망도 상향함."

아문디 멀티에셋 투자 전망*



▼ 전월 대비 하향 조정
▲ 전월 대비 상향 조정

Source: Amundi, as of 21 January 2026. Changes M-1 include from previous month. The table represents the main investment convictions (including hedging) of the Multi Asset Platforms. *The views are expressed relative to a Reference Asset Allocation (with benchmark 45% equity, 45% bonds, 5% commodities, 5% cash) with "=" being neutral. The + and - may not sum-up due to potential use of derivatives in the implementation. This is an assessment at a specific time, and it can be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 forecast of future results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by the reader as research, investment advice or a recommendation regarding any fund or any security in particular. This information is for illustrative purposes and does not represent the actual current, past or future asset allocation or portfolio of any Amundi product.

자산군별 아문디 전망

주식시장 전망

선진국 주식	전월 대비 변화	---	--	-	-/=	=	=/+	+	++	+++
미국						◆				
미국 성장률				◆						
미국 가치주							◆			
유럽							◆			
유럽 SMID								◆		
일본							◆			
EM 주식	전월 대비 변화	---	--	-	-/=	=	=/+	+	++	+++
EM							◆			
EM 아시아							◆			
남미								◆		
신흥 EMEA								◆		
중국 제외 EM							◆			
중국						◆				
인도							◆			

채권 전망

듀레이션	전월 대비 변화	---	--	-	-/=	=	=/+	+	++	+++
미국					◆					
EU							◆			
영국							◆			
일본						◆				
전체						◆				
크레딧	전월 대비 변화	---	--	-	-/=	=	=/+	+	++	+++
미국 투자등급						◆				
미국 하이일드				◆						
EU 투자등급								◆		
EU 하이일드						◆				
전체							◆			
신흥국 채권	전월 대비 변화	---	--	-	-/=	=	=/+	+	++	+++
중국 정부						◆				
인도 정부								◆		
신흥국 정부 HC								◆		
신흥국 LC									◆	
신흥국 회사채 HC								◆		
전체								◆		

글로벌 외환 전망

외환	전월 대비 변화	---	--	-	-/=	=	=/+	+	++	+++
USD	▲					◆				
EUR	▼				◆					
GBP					◆					
JPY							◆			
신흥국 통화*								◆		

Source: Summary of views expressed at the most recent **global investment committee (GIC) and discussions after, as on 21 January 2026**. The table shows absolute views on each asset class and are expressed on a 9 scale range, where = refers to a neutral stance. This material represents an assessment of the market at a specific time and is not intended to be a forecast of future events or a guarantee of future results. This information should not be relied upon by the reader as research, investment advice or a recommendation regarding any fund or any security in particular. This information is strictly for illustrative and educational purposes and is subject to change. This information does not represent the actual current, past or future asset allocation or portfolio of any Amundi product. FX table shows absolute FX views of the GIC. * Represents a consolidated view of multiple EM currencies.

▼ 전월 대비 등급 하향
▲ 전월 대비 상향 조정

DEFINITION ABBREVIATIONS

Currency abbreviations: USD – US dollar, BRL – Brazilian real, JPY – Japanese yen, GBP – British pound sterling, EUR – Euro, CAD – Canadian dollar, SEK – Swedish krona, NOK – Norwegian krone, CHF – Swiss Franc, NZD – New Zealand dollar, AUD – Australian dollar, CNY – Chinese Renminbi, CLP – Chilean Peso, MXN – Mexican Peso, IDR – Indonesian Rupiah, RUB – Russian Ruble, ZAR – South African Rand, TRY – Turkish lira, KRW – South Korean Won, THB – Thai Baht, HUF – Hungarian Forint.

IMPORTANT INFORMATION

The MSCI information may only be used for your internal use, may not be reproduced or disseminated in any form and may not be used as a basis for or a component of any financial instruments or products or indices. None of the MSCI information is intended to constitute investment advice or a recommendation to make (or refrain from making) any kind of investment decision and may not be relied on as such. Historical data and analysis should not be taken as an indication or guarantee of any future performance analysis, forecast or prediction. The MSCI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and the user of this information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each of its affiliates and each other person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iling, computing or creating any MSCI information (collectively, the “MSCI Parties”) expressly disclaims all warran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y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timeliness,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any MSCI Party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punitive, consequential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or any other damages. (www.msibarra.com).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SM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and a service mark of Standard & Poor’s and MSCI. Neither Standard & Poor’s, MSCI nor any other party involved in making or compiling any GICS classifications makes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or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o such standard or classification (or the results to be obtained by the use thereof), and all such parties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such standard or classific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Standard & Poor’s, MSCI, any of their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making or compiling any GICS classific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special, punitive, consequential or any other damages (including lost profits) even if notifi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AII* CONTRIBUTORS

LORENZO PORTELLI

HEAD OF CROSS ASSET STRATEGY, AII*

ALESSIA BERARDI

HEAD OF GLOBAL MACROECONOMICS, AII*

ANNALISA USARDI, CFA

SENIOR ECONOMIST, HEAD OF ADVANCED ECONOMY MODELLING, AII*

CHIEF EDITORS

MONICA DEFEND

HEAD OF AMUNDI INVESTMENT INSTITUTE

VINCENT MORTIER

GROUP CIO

EDITORS

CLAUDIA BERTINO

HEAD OF AMUNDI INVESTMENT INSIGHTS AND PUBLISHING, AII*

LAURA FIOROT

HEAD OF INVESTMENT INSIGHTS & CLIENT DIVISION, AII*

DEPUTY EDITOR

CY CROSBY TREMMEL

INVESTMENT INSIGHTS, AII*

DESIGN EDITOR

CHIARA BENETTI

DIGITAL ART DIRECTOR AND STRATEGY DESIGNER, AII*

* Amundi Investment Institute

IMPORTANT INFORMATION

This document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n offer to sell, a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or a recommendation of any security or any other product or service. Any securities, products, or services referenced may not be registered for sale with the relevant authority in your jurisdiction and may not be regulated or supervised by any governmental or similar authority in your jurisdiction.

Any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may only be used for your internal use, may not be reproduced or disseminated in any form and may not be used as a basis for or a component of any financial instruments or products or indices.

Furthermore, nothing in this document is intended to provide tax, legal, or investment advice.

Unless otherwise stated,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is from Amundi Asset Management SAS and is as of 10 February 2026. Diversification does not guarantee a profit or protect against a loss. This document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and the user of this information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Historical data and analysis should not be taken as an indication or guarantee of any future performance analysis, forecast or prediction. The views expressed regarding market and economic trends are those of the author and not necessarily Amundi Asset Management SAS and are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based on market and other conditions, and there can be no assurance that countries, markets or sectors will perform as expected. These views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investment advice, a security recommendation, or as an indication of trading for any Amundi product. Investment involves risks, including market, political, liquidity and currency risks.

Furthermore, in no event shall any person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is document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punitive, consequential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or any other damages.

Date of first use: 10 February 2026.

Document ID: 5206757

Document issued by Amundi Asset Management,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AS with a capital of €1,143,615,555 - Portfolio manager regulated by the AMF under number GP04000036 - Head office: 90-93 boulevard Pasteur - 75015 Paris - France - 437 574 452 RCS Paris - www.amundi.com

Photo credit: ©iStock/Getty Images Plus - Bloomberg Creativ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In an increasing complex and changing world, investors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ir environment and the evolution of investment practices in order to define their asset allocation and help construct their portfolios.

This environment spans across economic, financial, geopolitical, societ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To help meet this need, Amundi has created th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This independent research platform brings together Amundi's research, market strategy, investment themes and asset allocation advisory activities under one umbrella: th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Its aim is to produce and disseminate research and Thought Leadership publications which anticipate and innovate for the benefit of investment teams and clients alike.

Get the latest updates on:



- Geopolitics
- Economy and Markets
- Portfolio Strategy
- ESG Insights
- Capital Market Assumptions
- Cross Asset Research
- Real and Alternative Assets

Visit us on



[Visit the Research Center](#)

Amundi
Investment Solutions

Trust must be earned